



남성미 물론 풍기는 외관 디자인과 아웃도어 활동 시 온·오프로드를 가리지 않는 탄탄한 주행 성능을 강점으로 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제너레이션 GLK.

사진제공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도심에선 젠틀맨, 오프로드에선 마초맨

OUTDOOR & CAR |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제너레이션 GLK

상시 4륜 구동으로 뛰어난 직진 안정성
타이어-노면 마찰력 따라 구동력 배분
휠스핀 억제...오프로드서도 파워 주행

줄음운전·충돌 방지 안전장치도 충실

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제너레이션 GLK(이하 뉴 GLK)의 가장 큰 매력은 남성적인 매력에 물씬 풍기는 차별화된 스타일과 아웃도어 활동 시 온·오프로드를 가리지 않는 탄탄한 주행 성능, 운전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충실한 안전장치들에 있다. SUV의 최고 가치가 공간 활용성 보다는 안전과 탄탄한 온·오프로드 주행성능에 있다고 생각하는 예비 오너들이라면 뉴 GLK는 훌륭한 해답이다.

●온·오프로드를 넘나드는 안정성

벤츠 뉴 GLK에는 벤츠의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인 4MATIC이 장착돼 있다. 앞, 뒤 차축의 구동력을 45:55로 배분해 일반 도로에서는 4륜 구동의 장점(2륜 구

동보다 접지력이 높다)인 뛰어난 직진 안정성을 발휘한다.

또한 오프로드에서는 높은 트랙션 컨트롤 능력을 발휘한다. 노면 상황에 비해 구동력이 지나치게 커 타이어의 회전이 노면과의 마찰력을 넘어서면 타이어가 공회전하여 휠 스핀을 일으킨다. 4MATIC 시스템의 구동력 배분은 바로 이런 순간 휠스핀을 억제해 오프로드에서 주행성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4MATIC과 공조하는 4ETS(4Electronic Traction System) 및 다이내믹 핸들링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 타이어의 공회전과 미끄러짐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어한다. 그 결과 핸들링과 주행 안정성이 향상됐다. 도심에서는 깔끔한 신사 같은 안정된 주행 성능을, 오프로드에서는 마초같은 파워를 발휘하는 셈이다.

●적극적이고, 충실한 안전 장비

장거리 여행에 익숙하다고 해도 장시간 운전자의 피로는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벤츠 뉴 GLK는 운전자가 느끼는 피로감에 적극 개입해 안전 운전을



돕는다.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된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주의 어시스트(ATTENTION ASSIST) 기능이 장착돼 있다. 주행을 시작 한 후 20분간 70여 가지 이상의 측정 방식을 통해 운전자의 핸들 조작 성향을 측정하고, 운전자의 피로도가 가중돼 평균적인 핸들 조작 성향에서 벗어나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싶지만 피곤한 상황에서 디스플레이에 뜨는 경고 메시지를 확인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하고 운전이 몰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세팅을 통해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최적의 가시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인

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Intelligent Light System)과 후미차량에 LED 브레이크 라이트를 깜빡여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어답티브 브레이크 라이트(Adaptive brake lights) 등도 기본 장착되어 있다.

피할 수 없는 사고 시 운전자의 상해를 최소화시키는 안전장치들도 충실히 갖췄다. 6개의 에어백은 기본. 충돌 시 충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뛰어난 보호 성능을 발휘하는 고강도 패시저 셀(Passenger Cell)과 앞 좌석 헤드레스트를 이동시켜 충격을 완화하고 머리와 목에 가해지는 충격 및 부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넥 프로(NECK-PRO) 액티브 헤드레스트 등도 갖췄다.

성능에 비해 연비도 뛰어난 편이다.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넘나들었고 고속주행과 꽤 긴 정체구간을 통과하며 100km를 주행하고 난 뒤 확인한 실 연비는 13.3km/l였다. 공인 연비(13.1km/l)를 살짝 웃도는 기대 이상의 결과였다. 버텨 하나로 트렁크를 닫을 수 있는 트렁크 자동 닫힘 장치가 기본 적용돼 야외 활동의 편리함을 더해준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원데이 치과와 함께하는 아이(齒) 종아!

0.01mm 오차도 허용 않는다 초정밀 임플란트 ‘나노플란트’



임플란트는 치료·회복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생각 때문에 직장인 또는 학생과 같이 장기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업무도 내지 못한다.

또한 임플란트의 부작용이 걱정되어 치료를 받기 꺼려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밀하고 빠르며 간편한 나노플란트가 있기 때문이다. 나노플란트는 하루 만에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부작용 없고 심미성까지 높다.

●정확한 치아 검사와 나노플란트로 부작용 없애

임플란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구강구조와 맞는 교합력이다. 임플란트 식립시 교합력이 좋지 않아 0.01mm의 오차라도 발생한다면, 임플란트와 그 주위 치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수술 후 치아가 흔들거리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원데이치과에서는 수술 전 3차원 CT분석을 통해 환자의 치아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한 후 구강구조와 맞는 나노플란트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 나노플란트는 3차원 디지털 교합분석장치 T-스캔Ⅲ를 이용해 최적의 교합력으로 임플란트의 수명을 보장하는 시술이다. T-스캔Ⅲ는 임플란트, 보철, 교정치료 후 민감한 교정 조정을 해주는 최첨단 장비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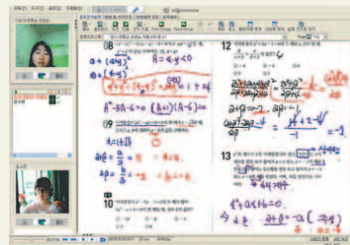
●하루면 OK! 시술 시간 획기적으로 줄여

기존 임플란트는 8~12주 정도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출혈도 많았다. 하지만 나노플란트는 개당 식립 시간이 10~20분 정도로 여러 치아를 한번에 식립 해도 길어야 약 1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 시술 후 바로 식사가 가능하다. 나노플란트의 수명은 약10년. 그러나 치료 후의 관리도 중요하다. 치료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치아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시술 후 자주 병원에 내원하여 치아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데이치과(서울 강남역 CGV 건물 2층)는 임플란트 경력 14년인 서울대 출신의 김진환 대표원장이 직접 상담을 한다. 또한 3차원 CT분석으로 사전 치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시술을 하고 있다.

BIZ BOX

전자칠판으로 밑줄 째 개인지도 화상과의 ‘파인스터디’ 인기몰이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는 화상과의가 대세다. 학원을 가거나 강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활용

해 1:1 개인지도를 받는 효과를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상과의는 컴퓨터에 태블릿, 전자펜, 카메라, 헤드셋 등의 장비를 연결한 뒤 온라인을 통해 강사와 학생이 전자칠판 화면을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상대의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화상과의는 수업 영상을 녹화해 반복학습을 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소수정예반(1~4명)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녀가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부모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화상과의 전문기업 파인스터디(대표 임병석)는 ‘Friend&Mentor’(학습동반자&멘토), ‘Fine&Mentor’(좋은 멘토), ‘Field Manual’(모든 일을 규정에 따라 진행)이라는 F&M 시스템으로 학생과 부모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인스터디의 화상강의가 주목받는 것은 한 반에 10여 명씩 교육을 받는 일명 ‘강의식 수업’이 아닌 ‘과외’라는 점이다. 학급은 1대1 개인지도반과 2~3명이 참여하는 소수정예반으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

풍부한 경력을 가진 명문대 출신으로, 파인스터디의 F&M 시스템 교육을 충분히 이수한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한다. (사진) 또한 회원들에게는 화상과의 수업 외에 전자칠판 강의 동영상, 문제풀이를 무료로 제공해준다. 파인스터디 관계자는 “매우 방대한 양으로 문제 수는 40만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시험 2~3주 전부터는 학년별, 학교별로 반을 편성해 시험범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내신 기출문제, 서술형문제, 빈출문제, 오답문제, 요약정리 등의 자료도 제공한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남다른 멘토링 시스템은 파인스터디의 강점이다. 학생을 테스트할 때 ‘인적성검사’를 해서 그 학생의 성격, 성향 등을 파악해 그에 맞는 공부방법과 교사를 연결해 준다. 또한 강사이자 인생의 선배인 선생들이 학습 노하우, 진로상담 등을 해준다. 한창 감성이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이 부담없이 고민상담을 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스마트폰 케이스도 ‘DIY 시대’

(Do It Yourself)

클릭 몇 번으로 나만의 케이스 직접 제작
팬백 ‘베가 아이언’ DIY 케이스 이벤트도

“스마트폰의 변신은 무죄!”

고가의 스마트폰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 케이스가 변하고 있다. 단순 제품 보호 기능에서 벗어나 패션 액세서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시중에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스마트폰 케이스가 판매 중이다. 최근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나만의 케이스’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도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모바일 액세서리 전문 제작사 디자인메이커가 최근 오픈한 ‘디자인메이커’도 그 중 하나다. 사용자는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케이스를 제작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 기종을 선택하고, 사진 파일을 편집한 뒤 주문하면 된다.

‘케이스바이미’도 스마트폰 케이스 DIY(Do It Yourself)서비스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의 이미지를 불러와 제작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구, 반려동물 등 직접 찍은 사진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스마트폰 제조 기업도 특별 이벤트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팬백은 베가 아이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베가 아이언’ 가족 케이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맞춤형 가족 케이스 제작’과 ‘가족 케이스 DIY 클래스’ 두 가지로 나뉜다. 맞춤형 가족 케이스 제작은 마크제이콥스, 버버리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핸드

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시몬느’의 장인이 소비자가 원하는 가족 소재와 형태에 맞춰 직접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이벤트. 가족 케이스 DIY 클래스는 가족 장인과 함께 소비자가 스스로 케이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벤트다. 디자인에서부터 가족 재단에 이르기까지의 전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클래스가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핸드백 박물관 ‘백스테이지(Bagstage)’에서 진행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팬백은 베가 아이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베가 브랜드 사이트(www.ivega.co.kr)에서 추천을 해 각각 50명의 당첨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기간은 맞춤형 가족 케이스 제작 이벤트는 6월 2일까지, 가족 케이



나만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인메이커’ 서비스. 사진제공 | 디자인메이커

스 DIY 클래스 이벤트는 6월 20일까지다. 팬백은 또 이와 별도로 ‘베가 아이언’의 Endless Metal(하나라도 이어진 금속테두리)에 글자를 새겨주는 ‘시그니처(Signature) 서비스’도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서비스 운영 지점은 서울(강남점, 종로점), 대전(둔산점), 대구(남대구점), 광주(광산점), 부산(서면점)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rye76

TOUR & INFO

내달 울릉도에 카라반 캠핑장 오픈



울릉도에 캠핑용 차량 카라반을 이용한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지난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37만5000여 명.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선풍 증편 등으로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에 반해 울릉도의 숙박시설은 열악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최대 수용인원 100명 규모의 울릉도카라반파크가 울릉도 도동리에 6월 오픈한다. 캠핑용 차량 ‘카라반’은 내부에 침대와 테이블, 냉장고, 에어컨,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사진) 또 외부에선 바비큐를 구워먹고 열린 공간에서 다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울릉도카라반파크에는 20대의 카라반이 설치된다. 각 카라반에는 트윈베드와 이층침대, 테이블번환형 소파까지 있어 최대 5명이 묵을 수 있다. 위치도 좋다. 울릉도의 명동인 도동리에 위치해 시내와 가깝고 저동 여객선터미널과 도동 여객선터미널도 차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다. 또 성인봉 등산코스의 시작점 중 하나인 울릉도 KBS중계소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1박 대여료는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9만원이다. 예약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1544-2383)나 홈페이지(www.caravan-park.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문의해委-인천공항세관 MOU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인천공항세관은 29일 인천공항세관 대회의실에서 공방 이용 여행자 통관서비스 개선과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위원회와 인천공항세관은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기간 동안 여행자 통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진질 서비스 교육 실시, 환대실천 캠페인, 휴대품 통관 필수 외국어 교재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위원회와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지난 3년간의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동 환대실천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편집 | 고정밀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